

이름	김윤아	글쓰기 수업 분반	07반
학번	20231835	글쓰기 담당 교수	이현정

<글쓰기-07반> PBL 보고서<sup>1)</sup>

## 국민대학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문제와 해결 방안

산림환경시스템학과 20231835 김윤아

### [ 목 차 ]

- I. 서론
- II. 간접흡연의 정의 및 위험성
- III.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
  - 1.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 2.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 3.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의 원인
- IV. 간접흡연 문제의 해결 방안
  - 1. 흡연시설 개선
  - 2. 흡연 시스템 개선
  - 3. 인식 개선
- V. 결론

### I. 서론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의 비율은 전체의 18.2%로,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sup>2)</sup>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1) 이 글은 2023년 1학기 국민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의 4조 PBL 활동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혀둔다.

2) 통계청 지표누리, 「현재 흡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60>  
 (2023.06.07)

사람이 많고, 이에 대한 기사 또한 속출하고 있다. 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본래 대학교 캠퍼스 내 모든 교사 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sup>3)</sup>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학교 건물 중 미래관을 자주 방문하는데, 미래관과 연결된 복지관 3층 통로에서 흡연하는 학생들로 인해 간접흡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미래관과 복지관 통로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할 때도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한 간접흡연을 경험한다. 대학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서도 국민대학교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지만, 확실하게 해결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민대학교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간접흡연의 정의 및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III장에서 국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의 결과를 통해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IV장에서는 간접흡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흡연시설 개선, 흡연 시스템 개선, 인식 개선의 3가지로 분류하며 살펴볼 것이다.

## II. 간접흡연의 정의 및 위험성

국민대학교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논하기 전, 간접흡연의 정의와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접흡연이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시게 되는 것이다. 흡연자가 연기를 내뿜을 때 발생하는 연기인 주류연과 담배 제품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인 부류연을 비흡연자가 의도치 않게 흡입하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간접흡연자가 흡입하는 연기 중 주류연이 20%, 부류연이 80%를 차지한다. 이때 부류연에 더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 외에도 피부, 옷, 가구 등에 남아 있는 담배의 독성물질을 마시는 3차 흡연도 있다.<sup>4)</sup>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소, 벤젠, 카드뮴, 베릴륨 등 최소 69가지의 발암성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접흡연은 흡연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데, 폐렴, 폐암 등 폐 기능 감소, 천식, 기관지염, 우울증, 뇌졸중 등이 있다.<sup>5)</sup>

## III.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 재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에서 17일까지 총 6일간 구글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

4)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간접흡연」.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1281](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1281)(2023.05.23)

5) 위의 자료.

했다.6) SNS와 ‘에브리타임’으로 링크를 공유하여 더 많은 학생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내 흡연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국민대학교 내 흡연자의 비율을 알기 위해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5명 중 흡연자가 26명으로 19.3%, 비흡연자가 109명으로 80.7%를 차지하여 비흡연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누어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흡연자에게 하루 동안 교내에서 흡연하는 횟수와 장소를 묻는 항목에서는 하루에 4~6회 흡연한다는 응답이 48.1%, 주로 교내 흡연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2.3%로 가장 많았다. 흡연 부스 사용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84.4%를, 캠퍼스 내 흡연시설의 수와 위치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했다. 흡연시설의 배치, 개수, 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불만족을 표한 20%는 흡연시설의 부족과 시설 내부 공간의 협소함, 주변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 등을 이유로 삼았다.

다음으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캠퍼스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경우를 묻는 항목에서는 흡연시설 주변을 지날 때 간접흡연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56.4%를 차지했다. 이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묻는 항목에서는 미래관 주변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는 복지관 3층 야외테라스처럼 금연 구역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비흡연자의 흡연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항목에서 불만족을 표한 29.6%는 흡연 구역의 배치와 위치 불만족, 흡연시설의 부족, 금연 구역에서 발생하는 흡연,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 흡연구역 범위의 애매함 등을 이유로 삼았다. 설문을 통해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캠퍼스 내 흡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2.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흡연구역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흡연구역 자체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많았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 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7곳<sup>7)</sup>을 현장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내 흡연구역을 반개방형 부스, 간이부스, 개방형 흡연구역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반개방형 부스가 설치된 곳은 성곡도서관과 공학관 사이, 경영관 1층, 복악관 뒤쪽, 과학관 뒤쪽으로 총 4곳이었다. 부스에 SMOKING AREA라고 표기되어 있어 흡연구역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스가 반개방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역만 나눌 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담배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한 간

6) 『교내 흡연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slX0pzqA0WFwWm5y-xbRnag0H6vfRGjh-DopQkA1a00hoQ/closedform>

7) 성곡도서관과 공학관 사이, 경영관 1층, 복악관 뒤쪽, 과학관 뒤쪽, 본부관과 조형관 사이, 복지관 3층 테라스, 용두리와 경상관 사이의 7곳이다.

접흡연 피해를 준다.

간이부스가 설치된 곳은 본부관과 조형관 사이였다. 간이부스는 반개방형 부스보다 담배 연기 차단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한다.

개방형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두리와 경상관 사이, 복지관 3층 테라스였다. 흡연구역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흡연구역의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하며 복지관 1층과 3층 테라스에 금연 구역 표시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관 1층이 금연 구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표시가 여러 개 붙어있었지만, 그곳에서 흡연하는 학생들과 바닥에 버려진 많은 담배꽂초가 있었다. 복지관 3층 테라스 금연 구역은 앞서 말했던 복지관 3층 테라스의 개방형 흡연구역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담배 연기가 그대로 금연 구역 쪽으로 넘어왔고, 이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했다.

### 3. 국민대학교 내 간접흡연 문제의 원인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국민대학교 내 흡연구역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흡연시설과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지만,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담배 연기가 퍼져 간접흡연 문제를 쉽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흡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흡연구역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국민대학교 안에서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2개로 도출했다. 첫 번째로 흡연시설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 흡연시설의 개수가 적고, 공간이 협소하며, 부스가 반개방형이거나 흡연구역 자체가 개방형이어서 주변으로 담배 연기가 빠져나간다. 두 번째로는 금연 구역과 같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의 위치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IV. 간접흡연 문제의 해결 방안

### 1. 흡연시설 개선

국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시설은 개방된 형태이기 때문에 흡연시설 안에서 흡연하더라도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폐쇄형 흡연 부스는 담배 연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때문에 간접흡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타 대학에서도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도 한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뒤, 흡연 부스 설치를 추진하였다.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부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흡연 부스를 설치하였다. 환기 시설이 잘 갖추어진 폐쇄형 흡연 부스가 설치된 뒤 기존에 있던 개방형 흡연구역에 비해 간접흡연 문제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sup>8)</sup>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스

8) 손종욱(2020.11.09.), 「담배 악취 안녕,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흡연 부스 설치된다.」, 『아주대신문방송사』, <http://press.ajou.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2023.05.26.)

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하였다. 이는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자 성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설치한 흡연 부스이다. 음압 설비로 담배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조 시스템을 통해 부스 내 연기를 제거하여 실내 환기가 가능하다. 정화 필터와 환풍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흡연 부스 내부에 머물러도 옷에 담배 냄새가 배지 않는다. 또, 자동 소화 및 파쇄 기능이 있어 버려진 담뱃재와 공초가 친환경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친환경 재떨이를 배치하였다.<sup>9)</sup> 필자는 전공 수업 현장 실습을 위해 서울숲으로 견학을 갔을 때, 실제로 성동구 스마트 흡연 부스를 본 적이 있다. 많은 흡연자가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흡연 부스의 주변을 지날 때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했다. 아주대학교의 폐쇄형 흡연 부스, 성동구의 스마트 흡연 부스와 같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고려한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간접흡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흡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대학교의 흡연구역 중 가장 경계가 모호한 복지관 3층 테라스를 예시로 들면, 바닥에 흡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흡연자와의 거리가 최소 3m일 때 비흡연자가 미세먼지와 여러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다.<sup>10)</sup>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3m 떨어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흡연구역 밖으로 3m 간격을 표시하고, 비흡연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여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흡연 시스템 개선

현재 국민대학교에는 캠퍼스 내 흡연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캠퍼스 내에 흡연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흡연구역 지도가 배치되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흡연 구역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대학교도 이를 본받아 흡연구역을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하여 캠퍼스 내에 배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흡연자들이 교내 흡연구역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흡연구역 내부가 청결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흡연구역 밖에서 흡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흡연구역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이를 인식하면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의 흡연구역 관리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흡연구역을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식 개선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가 지켜야 할 흡연 에티켓을 부착하여 간접흡연이

9) 조시승(2023.01.30.), 「담배연기 걱정 없는 '스마트 흡연부스', 간접흡연 줄여요!」, 『내 손안에 서울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800>(2023.05.26.)

10) 질병관리청(2022.07.21),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7.22.조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563>(2023.06.07)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하기’, ‘바닥에 침 뱉지 않기’, ‘담배꽂이는 재떨이에 버리기’ 등의 내용을 담은 에티켓을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면 흡연자들이 이 에티켓을 읽고 조금이나마 간접흡연자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앞선 설문에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 내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고,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대학교의 흡연구역, 금연 구역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와 학교 SNS에 게시한다면 금연 구역에서 발생하는 흡연을 줄일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국민대학교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대학교 내에는 흡연 부스, 흡연 구역 등 여러 흡연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국민대학교 간접흡연 문제의 원인을 흡연시설 자체의 문제와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흡연 문제로 도출해냈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동구의 스마트 흡연 부스, 아주대학교의 흡연 부스와 같은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당장 실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바닥에 테이프로 경계를 표시하여 현재 흡연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캠퍼스 내 흡연구역 지도를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흡연구역 관리 설문조사 QR을 부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흡연 에티켓 제작과 포스터를 제작해야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와 의무실에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흡연 문제는 총학생회의 관할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고 의무실과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인터뷰하지 못했다.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인 폐쇄형 흡연 부스 설치 위치와 비용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학생들이 겪는 간접흡연 문제의 심각성과 그들이 원하는 해결 방안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간접흡연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도 간접흡연 문제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

손종욱(2020.11.09.), 「담배 약취 안녕,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흡연 부스 설치된다.」, 『아주대신문방송사』, <http://press.ajou.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 (2023.05.26.)

조시승(2023.01.30.), 「담배연기 걱정 없는 ‘스마트 흡연부스’, 간접흡연 줄어요!」, 『내 손안에 서울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800>(2023.05.26.)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간접흡연」,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1281](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1281)(2023.05.23.)

질병관리청(2022.07.21),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7.22.조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563> (2023.06.07.)

통계청 지표누리, 「현재 흡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60>(2023.06.07)